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한 치의 타협 없이

도 강 호
(상임의장)

우리 「사월혁명연구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사월혁명회」로 개칭하였습니다. 학술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던 연구단체에서 실천적 참여단체로 획기적 전환을 한 셈입니다.

창립 이후 10년간을 돌이켜보면 크고 많은 일들에 부닥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임원진과 열성적인 회원들의 적극적이고도 슬기로운 처신에 힘입어 오늘날까지 잘 존치해 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간을 말입니다. 88년 창립 당시 는 군사정권이 무너진 직후라서 민민운동권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면서 변혁운동단체를 결성하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고 하늘을 찌를 듯한 기개를 갖고 거리에 나섰던 꽃다운 젊은이들이 5.16 박정희 파쇼군인들의 군홧발 아래 무참히 짓밟히던 날로부터 27년 만의 일이던가요.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이었던 파쇼군 부와는 한 치의 타협 없이 살아온 진정한 우리 ‘4월혁명아’들은 암울했던 기나긴 세월 동안 온갖 고통과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조국과 민족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신념과 양심을 지켜왔습니다.

폭악한 군사통치자들로부터 모진 고통을 당하고 세파에 시달려 온 우리 4월혁명 동지들이 10년 전 오늘 만났을 때는 이미 반백이 넘는 병들고 힘없는 중늙은이로 변해 있었지만 몸 구석구석에 짝 스며 있는 신념의 강한 의지는 1960년 4월 그대로를 품고 있었습니다.

4월혁명 동지들이 이렇게 만든 사월혁명회는 조국 속에 4.19가 중요하게 자리매김하듯이 영원히 존재해야 하며 보다 더 활발하게 4.19 정신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부분 회갑을 지나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하고 있습니다. 요

즈음은 의술도 좋아지고 건강관리도 잘하여 빨리 죽지는 않지만 우리 세대쯤이면 인생의 마감을 준비해야 할 단계에까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인생을 효과적으로 가치 있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희망을 던지고 있지만 우리는 4월혁명 38주년 선언문에 밝혔듯이 자주·민주·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외세의존적 통일 정책을 배제하는 데 노력해야겠습니다.

사월혁명회보 제52호(1998.6)